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편집인 이연택 100-718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7-28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T.02)733-3991~3 인쇄 (주)한우리SJM

2011년 (단기 4344년) 10월 10일 (월) http://dongguk.or.kr 제224호

총동창회 장학생 500명 넘어섰다

대학평가 순위 상승 염원과 정성 담아

서울캠퍼스 9월 7일 수여

2011년도 서울캠퍼스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9월 7일(수) 오전 10시30분 모교 중강당에서 열려 학과·대학원·지역동문회와 정각원 등에서 추천한 123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백만원씩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또 경주캠퍼스는 지난 9월 22일 8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와함께 학과·대학원 등 각급단위 동문회 자체적으로 60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돼 이번 2학기에만 263명의 후배들이 장학혜택을 받았다.

이로써 총동창회는 지난 1학기 253명과 합쳐 모두 51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 금년 목표 5백명을 초과달성하는 개가를 올려 장학금 지원액이 5억원을 넘었다.

이날 서울캠퍼스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이연택 총동창회장 겸 동국장학회 이사장은 "금년도 1,2학기 장학생 500명의 숫자는 국내 대학 중 가장 많고 알찬 규모로써 이는 모교 평가순위 상승을 염원하는 23만 총동문의 뜨거운 정성과 뜻이 모아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오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개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계속 키워 나라와 사회에 일익이 될 큰 인물들이 되길 바란다"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구 분	1학기		2학기		합 계
	총동창회	지부(회)	총동창회	지부(회)	
장학생	200명	53명	203명	60명	516명
장학금	2억원	5천3백만원	2억3백만원	6천만원	5억1천6백만원



▲ 서울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을 마친 뒤 명진관 앞에서의 기념촬영

본회 신관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은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김진억 감사의 경과보고 등이 있은 뒤, 문과대학소속 학생 9명에게 구자선 동국장학회 이사가 장학증서를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이과대학(나경미 장학회 이사) △법과대학(연기영 상임부회장) △사회과학대학(정환민 상임부회장) △경영대학(이제곤 감사) △바이오시스템대학(이재형 상임부회장) △공과대학(임덕규 고문) △사범대학(문병호 상임부회장) △영상미디어대학(심응석 경찰행정학과 동문회장) △예술대학(김용구 수원동문회장) △대학원(김오현 상임부회장) △정각원(정각원 교법사 제정스님) △여성ROTC(이영균 ROTC동문회장) 소속 학생 순으로 증서 수여가 있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지부·지회 장학금 수여식이 이어져 ROTC동문회(성영석 장학위원장)가 7명에게, 건축공학과 동문회(조정식 교수)가 1명에게 각각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다.

김영순 교수 1천만원 즉석 기탁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모교 화학과 교수로 30여년을 재직하다 지난 8월 31일 정년퇴임을 맞은 본회 상임(담당)부회장 겸 여자총동창회장 김영순(65/69화학) 교수가 퇴임을 기념해 가진 전통민화 전시회 수익금 가운데 1천만원을 이연택 회장에게 본회 장학기금으로 전달하여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전달식이 끝난 뒤 장학생들과 본회 임원들은 자리를 옮겨 명진관(석조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상록원 3층 교수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며 선,후배간에 정겨운 인사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경주캠퍼스는 9월22일에

경주캠퍼스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9월 22일 오전 11시 경주캠퍼스 백상관 컨벤션 홀에서 있었다. 지난 1학기의 74명에 이어 2학기에는 8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된 이날 수여식에는 본회에서 전영화 사무총장과 신관호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학교 측에서는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과 보직교수들을 비롯한 교직원, 재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본회 이연택 회장은 전영화 사무총장이 대독한 인사말에서 "동국장학회가 후배들에게 주는 이 장학금에는 학생들의 취업이나 사기 진작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23만 총동문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말하고 "총동창회는 앞으로 개인별 수혜금액을 더욱 늘려 모교를 빛낼 인재들이 긍지와 힘을 키울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종 경주캠퍼스 총장은 축사에서 "후배 사랑의 마음이 모인 이 장학금은 더없이 아름답고 뜻깊은 것으로, 전국 각지에서 소중한 뜻을 모아 주신 동창회와 동문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학생들은 이 뜻과 의미를 소중히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면학에 힘써 장차 사회에 꼭 필요한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장학증서는 불교문화대학 소속 학생 5명에게 전영화 상임부회장겸 사무총장이 첫 수여를 한데 이어 △인문과학대학 16명(최규철 고문) △과학기술대학 13명(박병훈 직할경주동창회장) △에너지환경대학 2명(경주정각원장 화랑스님) △사회과학대학 6명(손창수 대구동창회장) △경영관광대학 21명(동림동문회장 무상스님, 공석돈 회계학과동문회장) △사범교육대학 3명(불국사 사서실장 정빈스님) △한의과-의과대학 8명(박진호 부산동창회 수석부회장) △대학원 3명-이두철장학 2명(김석만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장)순으로 진행되었다.

지·면·안·내 2~5면 본회소식 / 4면 동국인 칼럼 / 7면 차 한잔을 나누며…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 / 10~11면 동문 동정 / 13면 수원지부 탐방

임시 이사회 및 총회 11월30일 개최

제26대 임원 선출 · 일부 회칙 개정안 상정

제26대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오는 11월30일(수) 오후 6시30분 소피텔 앰배서더 2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다.

이날 이사회 및 총회는 제25대 임원 임기만료(12월31일)에 따라 후임 임원 선거 등을 위한 것으로 제1부 임시 이사회, 제2부 임시 총회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제1부 임시 이사회는 회무보고에 이어 주요 안건으로 제26대 임원(회장 및 감사) 선출안과 일부 회칙 개정안이 상정된다.

제2부는 임시 총회로 임시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추인, 확정하는 절차를 갖게 된다.

제26대 임원 선출과 관련해 지난 9월2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회장 추대위원회' 구성안을 회장에게 일괄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난 9월28일 선거관리 규정 제3조 2항에 따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5명으로 '제26대 임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지난 9월29일(목) 오후 6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는 위원별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 공정 선거관리 서약이 있은다음 임원선거 일정 등을 논의, 결정했다. 선거일정은 회장 후보자 등록을 오는 11월11일부터 21일까지, 선거는 11월30일 치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이사회에 상정될 회칙개정안은 △제3조의 '사무소' 부분과 △제13조 임원의 임기 부분 등이다.

동국인의 밤 12월14일 열린다

앰배서더 호텔서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

2011년 '동국인의 밤' 행사가 오는 12월14일 오후 6시30분부터 장충동 소재 소피텔 앰배서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지난 9월27일 오전에 열린 본회 상임위원회는 임시 이사회 및 임시총회와 별도로 '동국인의 밤' 행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동국인의 밤' 행사는 회칙 개정으로 인해 임원 선출 이사회 및 총회 일정과 겹쳐 '신년인사회'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40년이나 이어온 본회의 대표적 큰 행사인데다 동문들의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동국인의 밤 행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 축하-공로패 수여, 행운권 추첨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편 본회는 축하패와 공로패 수상 대상자를 각 지부·지회 동문회를 통해 추천받을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위원장에 정환민 상임부회장 선임

제26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본회 회칙 부칙 제3조(선거 규칙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및 임원 등 선거규칙 제3조(선거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에 의거, 지난 9월30일자로 7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했다.임기는 2년.

이번에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은 위원장에 정환민(65/69농학)상임부회장, 부위원장에 김영순(65/69화학)여자총동창회장, 위원에 이영균(68/72도공)ROTC동문회장, 강영규(70/77경행)전 7080회장, 이 황(72/08식공)식품공학과동창회장, 김창규(80/84법학)부회장, 황영남(90/92교원)부회장 등이다. 실무를 담당할 간사로는 사무처 이상호 팀장이 지명됐다.

인천 회장에 이환섭 동문

오는 11월 정기총회 열려



인천지부동문회(회장=최종협,54/58경제)는 지난 9월21일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신임회장에 이환섭(71/75경행, 에스원 고문)동문을 선출했다. 박오규(62/66경제) 최성철(72/76경행, 부평경찰서장) 박천화(73/80경행, 경찰청 경무국장) 최진탁(73/77수학, 인천대학장) 등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11월 중 갖기로 했다.

성남시동문회 정기총회

신임회장에 고용규 동문

성남시동문회(회장=임선교,58/63경제) 정기총회가 오는 10월15일 오후 5시 성남시청 3층 탄전관에서 열린다. 이날 총회에서는 고용규(70/74정외, (주)동우들 대표이사)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동문은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43차 동국산악제전

월악산서 경주와 합동

동국산악회(회장=이광윤)의 제43차 동국산악제전이 오는 10월16일 월악산에서 경주산악부와 합동으로 열린다. 불교의식으로 갖게되는 이번 산제에서는 회원들의 무사산행과 한국의 대표적 산악인 박영석 동문의 안나푸르나 남벽 도전 성공 등을 기원하게 된다.

제26대 임원 입후보자 등록 공고

본회 회칙 제12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총동창회 23만 동문을 이끌어 나갈 제26대 임원 후보를 다음과 같이 등록받습니다.

1. 임원 종류 : 총동창회장 (1인), 감사 (3인)
2. 등록 마감 : 2011년 11월11일~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3. 등록처 : 총동창회 사무처 ☎ 02-733-3991, 3993
   FAX : 02-733-3992
4. 구비서류 (선거규칙 제7조)
   - ■ 등록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사진부착) ■정회원 증명서 1부
   - ■ 서약서 1부 (회장 입후보자만 해당) ■ 선거 참관인 명부 (3인 이내)
5. 참고 사항
   - ■ 회장에 입후보하는 자는 동국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정회원이어야 함. (회칙 제10조 2항).
   - ■등록신청서는 동창회 소정양식 이용.
   -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실무 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10. 5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선거관리위원회

한우삼 총 1억1천만원 · 송석환 총 1억원 · 안채란 6천만원 · 구자선 2천만원

후배사랑 장학기금 바이러스 확산

"명문 동국 제2건학에 주춧돌 놓겠다"


▲ 안채란 동문


▲ 한우삼 동문


▲ 송석환 동문


▲ 구자선 동문


▲ 홍파스님


▲ 김영순 동문


▲ 나경미 동문


▲ 김성재 동문


▲ 고용규 동문

홍파스님 · 김영순 · 나경미 각 1천만원

안채란 동문
모교에 기천억대 재산 기증

학교법인 영석학원 설립자이며 (사)채란불교사상연구회 회장으로 있는 안채란(48/54국문) 동문이 9월 30일과 10월 7일 각 3천만원씩 모두 6천만원을 본회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에 기탁해왔다.

지난 1월 10일 교과부 승인을 얻어 자신이 설립한 기천억원대의 영석고등학교를 모교 재단에 아무 대가없이 기부하고 '동국대학교사범대학교부속영석고등학교'로 새롭게 탄생시킨 바 있는 안채란 동문은 평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며 존경받는 교육자로 동문사회에 미담이 되어왔다.

2011학년도 모교 봄 학위수여식에서 명예교육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본회의 '동국인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우삼 동문
솔선기부 모범보인 기업인

본회 상임부회장이며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인 한우삼(63/69농학)동문이 지난 8월 12일 본회에 장학기금 3천만원을 보내와 본인의 약정금액 1억원을 초과한 모두 1억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쾌척했다.

현재 자동차 부품의 전문제조 메이커인 태양금속공업(주) 회장으로 있는 한우삼 동문은 지난 2009년 3월에 1천만원, 2010년 연말에 2천만원, 그리고 올해 3월 5천만원을 보내오면서 성실하고 전도유망한 후배들의 지원을 위한 자발적 기부로 동문사회에 아름다운 귀감이 되고 있다.

송석환 동문
동국사랑의 든든한 버팀목

본회 수석부회장 송석환(64/68농경) 동문이 지난 8월 12일 장학기금 2천만원을 보내와 약정금액 1억원을 완납했다.

주식회사 동진기업(주) 회장이며 송설당 교육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송석환 동문은 평소 모교와 동창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면서 동문간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으며 지난 2010년 12월까지 모두 8천만원의 기금을 보내왔고 이번 기부로 본인의 약정액을 달성, 후배들을 위해 또 한 차례의 고맙고 따뜻한 소식이 되었다.

구자선 동문
모교 · 동창회 넘나들며 기부

(주)자연과 사람 회장 구자선(79/81경원, 본회 부회장)동문이 지난 9월 23일 장학기금 2천만원을 보내왔다.

그동안 모교 발전기금으로 10억 7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는 구자선 동문은 본회 회관 건립기금으로도 2억원을 쾌척, 지난 해 12월 본회의 '동국인의 밤' 행사에서 '자랑스러운 동국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한국경제인 불자연합회 회장으로서 우리나라 불교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면서 동문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홍파 스님
불교학과로 지정 기탁해와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 겸 본회 부회장인 홍파스님(63/67불교)이 지난 8월 25일 본회에 불교학과 지정 장학기금 1천만원을 보내왔다.

홍파스님은 지난 2007년 2월 28일에도 장학기금 1천만원을 보내와 모두 2천만원이 됐다. 홍파스님은 현재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을 맡고 있다.

김영순 동문
'민화 전시회' 수익금 기탁

모교 화학과 교수로 30여년을 재직하다 지난 8월 31일 정년퇴임을 맞은 여자총동창회장 김영순(65/69화학) 교수가 지난 9월 7일 모교 중강당에서 있었던 2011년도 서울캠퍼스 2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정년퇴임을 기념해 가진 전통민화 전시회에서 수익금 1천만원을 이연택 회장에게 본회 장학기금으로 전달하였다.

나경미 동문
'되물림 장학금'의 표본

제일 테크노스 부사장 나경미(70/74정외, 본회 부회장) 동문이 지난 8월 30일 앰배서더호텔 2층 VIP룸에서 개최된 (재)동국장학회 2011년도 3차 이사회 자리에서 1천만원을 모교 지정장학금으로 본회 이연택 회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2010년 3월 본회에 장학금 5천만원을 기부한 바 있는 나 동문은 "재학시절에 받은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되물려주는 전통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행정학과 골프팀 3백만원

경찰행정학과 골프모임인 동경회(회장=박재승)가 10월10일 장학기금 3백만원을 보내왔다. 동경회는 지난 9월 28일 열린 '제1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시상식에서 우승 기념으로 3백만원을 약정했었다.

김성재 · 고용규 동문 각 1백만원

경주중앙청과(주) 회장 김성재(58/63정치) 동문과 (주)동우들 대표이사 고용규(70/74정외) 동문이 지난 9월 28일과 8월 30일에 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보내왔다.

배충남 동문 10만원

배충남(62/66상학)동문이 지난 7월 1일 장학기금 10만원을 보내왔다.

동국장학회 이사회

2학기 장학금 계획 의결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2011년도 제3차 이사회가 이연택 이사장을 비롯해 김동정, 원용선, 이무웅, 구자선, 김진문, 나경미 이사와 김진억, 이홍섭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8월 30일 오전 앰배서더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1년도 2학기 장학금으로 동국장학회 지급인원을 200명, 지부(회) 지급인원을 50명 등 모두 250명에게 각 1백만원씩 총 2억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동 국 인 칼 럼

동국사랑 장학금으로 '동악'을 춤추게 하자

다른 대학의 선망 대상으로

최근 반값 등록금이 사회이슈화되면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장학금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총동창회가 금년에 무려 5백여명의 후배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획기적인 금자탑을 세웠다. 이는 숫자로만 본다면 국내 대학동창회 장학금 지급에 있어 톱 수준에 속한다. 총동창회가 이처럼 장학기금을 확보해 후배들에게 지급하는 이유는 재단, 교직원, 학생, 동문 모두가 염원하는 '일류 동국 만들기'에 다름아니다. 기실 동문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각 언론사의 대학평가는 민감한 부분이다. 동문사회는 모교 발전을 통해 사회적 신분 상승을 기대한다. 학교의 브랜드 파워가 동문들의 자부심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좋은 후배들을 길러보겠다고 지원하는 장학사업이 탄력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교 평가는 동창회 위상과 맞물려

우리 동창회장학금이 가시적 성과를 올린 것은 최근 1~2년 사이의 일이다.

그동안 총동창회는 1970년대초부터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지만 제도적인 발판은 1995년 '재단법인 동국장학회'가 출범하면서부터 이다. 당시 동국장학회는 기본재산 3억5천650만원으로 첫 해에 17명에게 1천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리고 매년, 지난 2009년까지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70여명까지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기본재산도 7억여원까지 끌어 올렸다. 그러나 이를 외부에 발표하기엔 모교의 역사로 보나 졸업생 파워에 비추어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에 제25대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2009년 9월 취임하자마자 "주요 언론사들의 대학평가에서 모교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동창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동창회장학금을 국내 최고수준으로 지급하고, 아울러 우수교수 연구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창회 활성화와 맞물려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 이르렀다.

먼저 지난해에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를 총동창회 유지재단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기본재산을 10억원으로 증식했다. 그리고 서울-경주캠퍼스 재학생 221명에게 장학금을, 각종 고시준비 준비생 125명에게 학습지원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교수 25명에게는 1억원의 연구활동 격려비를 내놓았다. 또한 금년에는 1학기에 253명, 2학기에 263명 등 모두 51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때마침 지난 9월중순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의 학과별 평가에서 영어영문학과가 최상위그룹 학과로 부상하고, 다른 학과들도 '상'과 '중상'그룹을 마크했다. 이는 총동창회가 지원한 장학금과 교수연구지원비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量보다 質 - 지속적 영위가 과제

그러나 아직도 장학사업은 가야할 길이 멀다. 그 하나는 양(숫자)과 더불어 질(지급액)을 향상시키는 일이다. 현재의 지급액 1백만원은 개인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전체 등록금에 비해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다. '동창회 장학금'의 궁극적인 목표는 수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명예를 간직하여 나중에 사회에 나와 후배들에게 되돌려주는 '릴레이장학금'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일이다.

두번째로는 이 장학사업의 지속적 영위가 과제로 남는다. 앞으로 기본재산을 대폭 늘리는 것에서부터 장학금 지급 수준을 현상 유지하거나, 전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일이 그것들이다.

지난해와 금년에 장학사업 실적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뜻있는 동문들이 솔선수범해서 기금을 출연해준 덕분이다.

'장학금 되물림 운동'으로 활로 모색

세계 유명대학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장학금 확보와 장학제도에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우리 동창회가 장학사업에 심혈을 쏟는 것은 명문대학의 전통을 지키고, 23만 동문들의 존재감을 업그레이드 하자는데 있다.

모든 전통도 그렇지만 총동창회의 장학사업도 창조보다 수성이 어려울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의지와 참여분위기 조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재학시절 우등장학이나 총장장학, 교외장학이나 기타 어떤 종류의 장학금을 받았던 간에 그 동문들부터 솔선하여 이를 환원하는 의미에서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되물림 운동'에 적극성을 보인다면 아름다운 동행이 되리라 확신한다.

모교는 장학금의 참 의미 새겨야

나아가 이제는 전체 동문사회의 마인드 변화도 요구된다. 물론 몇몇 성공한 기업인이나 뜻있는 동문들의 참여는 소중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많은 동문들이 십시일반 참여해 '동국사랑'의 관심을 표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모교의 위상이나 발전은 말로 하는 주술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동문들의 의무이다. 따라서 바로 나부터라도 '노블레스 오브리제' 정신, 즉 봉사와 나눔의 외연이 확대되도록 동문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한편 모교당국이나 재학생들은 총동창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참 의미를 헤아려 열심히 가르치고 배워서 모교를 진정한 'MY PRIDE 동국'으로 격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최 중 홍

(81/85국문, 문화일보 편집부국장, 본회 홍보위원)

임시 이사회 및 임시 총회 공고

회칙 제15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및 제1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 총회 및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임원 및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 2011. 11. 30(수) 오후 6:30
■ 장 소 :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2층 그랜드볼룸
(장충동 소재)
■ 안 건 : 제26대 임원 선출의 건 外
■ 문 의 : 02)733-3991, 733-3993

2011.10. 5

동국대학교 총동창회장

'2011 동국인의 밤'에서 만나요

모천(母川)을 다시 찾은 연어들의 기쁜 마음으로
'동국사랑'의 용광로를 뜨겁게 달구는 자리…
'MY PRIDE 동국'의 주인공이신 동문 여러분을 모십니다

■ 일 시 : 2011년 12월 14일 (수) 오후 6시 30분
■ 장 소 : 호텔 소피텔 앰배서더 2층 그랜드볼룸
■ 내 용 : ●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시상
● 공로패 수여
● 행운권 추첨 외
■ 문 의 : 02)733-3991, 3993 02)736-4987, 4988

※ 자랑스러운 동국인상, 모범지부(회)상 대상후보를 추천받습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재단이사 후보로 '회장' 추천

상임위원회 각종 현안 문제 협의



본회 제 2011-5차 상임위원회가 이연택 회장을 비롯 김동정 원용선 상임고문, 송석환 수석부회장과 상임 부회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27일(수) 오전 7시30분 앰배서더호텔서 열렸다.

이날 상임위원회에는 △재단이사 동문대표 추천방안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원 추대위원회 구성 △입후보자 공고의 본회 홈페이지 활용 △회칙 일부 개정 △'동국인의 밤' 행사의 '신년교례회'로의 전환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이날 첫 번째 안건인 재단 이사 동문대표 추천의 건은 재단이사회에 동문대표가 참여해야한다는 분위기 조성 노력으로 종·재단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고 인선방안을 논의 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들은 "재단이사 후보 추천은 어느 특정인을 추천하는 것보다는 총동창회장을 당연직으로 추천하는 것이 취지나 순리에 맞다"고 중지를 모으고 "총동창회장이 바뀔 경우에는 차기 회장을 자동승계자로 한다"며 현 회장을 추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관례에 따라 재단이사회에 복수 추천을 할 경우에는 나머지 1인에 대해서는 회장에게 후보 추천을 일임하기로 했다.

이어 제26대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추대위원회 구성 안건은 회장에게 일괄 위임한다는데 동의했다. 추대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 제25조 2항에 따라 차기회장 후보 등록이 없을 경우, 3일 이내에 회장이 상임부회장단의 자문을 거쳐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후 입후보자를 동창회보에 공고(선거관리규정 제10조 1항)하는 안건은 본회 홈페이지 공고도 가능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될 안건으로 회칙 개정의 건도 논의했다. 회칙 개정부분은 제3조의 사무소 중 '경주캠퍼스가 있는 경주시에 직할동창회를 둔다'를 추가하고, 제13조 임원의 임기를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하되 제26대 임원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원 임기의 경우, 재단이사장·총장 등과의 파트너쉽과 동창회 조직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동문사회 일각에서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사안이다.

이날 회의 보고사항으로는 △2011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 내용 △제1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진행사항 △제1회 동국가족 남산걷기대회 계획 등이 차례로 설명되었다.

종단·재단 등에 건의문 발송

본회는 동문 대표의 재단이사회 참여를 위해 종단과 재단 관계자 면담 설명과 종립학교관리위원회,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원로 동문 등에게 건의문을 보내는 등 각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본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총동창회는 안타깝게도 학교운영에 대한 공식적 협조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이사회에 참여기회가 마련되어 있지않아 동문들의 모교 사랑 열정이 제한받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단이사회에 동문사회의 정계, 재계, 학계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 발전의 지혜를 모으고 경쟁력을 키워나가자"고 피력하였다.

모교 재단이사 선임

재가이사에 안채란 동문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로 심경스님(총무원 사서실장), 영담스님(불교방송 이사장), 미산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명신스님(서울 보현사 주지) 등이 선임됐다.

모교 재단이사회(이사장 정련스님)는 지난 9월29일 모교 본관 5층에서 현 이사진 11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6회 이사회를 열고 이사 4명, 개방이사 1명, 당연직 이사 1명을 각각 선임했다.

오는 12월3일 임기가 끝나는 전순표 이사 후임으로 심경스님, 최규철 이사 후임에는 영담스님, 수인스님 후임으로는 미산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또 임기만료된 영배스님의 후임으로 명신스님을 선임했다.

같은 날 임기만료되는 개방이사 2명 가운데 영담스님 후임으로는 안채란 전 학교법인 영석학원 이사장이 선임됐으며, 김희옥 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출됐다.

신임 이사들의 임기는 2011년 12월4일부터 2015년 12월3일까지 4년간이다.

한편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경스님)는 이에 앞서 지난 9월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82차 회의를 열고 승려이사는 종단에서, 재가이사는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원칙을 세운 뒤 이사 후보를 복수 추천했다.

또 동국대 이사들은 임기동안 매년 5000만원 이상 학교발전기금 출연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승려 이사 추천안은 지난 9월19일 열린 제187회 임시중앙종회 동의절차를 거쳐 모교 재단이사회에 최종 통보되었다.

회계연도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바뀌었습니다

회비는 1년에 한 번 ... 동문님의 정성을 보내주십시오

지난 해 5월 26일 개최된 정기 이사회 및 정기총회에서 회계년도 관련 회칙(제27조) 개정으로 회계년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동문님께서 내주신 연회비와 임원회비는 후배장학사업, 동창회보 제작, 조직강화 및 모교발전을 위한 지원 등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생각날 때, 바로 지금 보내시면 좋습니다.

- 일반회원 년 회비 : 2만원
- 임원 분담금
  - 고문 : 1백만원 이상 ■부회장 : 1백만원
  - 지도위원 : 30만원
  - 상임이사 : 20만원 ■이사 : 10만원

- 납부방법
  - 송금계좌 : 외환은행 150-22-01536-0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국민은행 006001-04-237869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지로납부 : 7500891 (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후배사랑 '장학기금'도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 장학기금 : 국민은행 501601-01-141914 (예금주 :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각종 문의사항은 총동창회 사무처(전화 02-733-3993, 736-49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

'싸릿한 가격으로 추억을 파는 국민항공사' 모토

모교의 명성 부활과 자존심 위해 역할 하고파



- 현대증권 근무(1989-2001)
- (주) KIC 대표이사(2001-2006)
- 現 사단법인 한국MK(메이드 인 코리아) 패션산업발전협회 고문
- 전주대학교 경영학부 객원교수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어린이 구호단체 '굿 월드' 자선은행 대표

그의 비행기에는 별이 뜨는 하늘이 있고, 우주선이 있고, 생 텍쥐페리의 주인공 어린 왕자가 있다. 자사 비행기를 탄 고객들이 스토리가 담겨있는 재미있고 색다른 테마별 공간에서 여유와 편안함을 즐기며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배려한 이 유니크한 아이디어는 최근 국내 최대 저비용항공사로 떠오르고 있는 '이스타항공' 회장 이상직(82/89경영) 동문의 튀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셀러리 맨에서 CEO 등극

이상직. 사람들은 그를 일러 평범한 샐러리 맨에서 전문 경영인으로 등극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라고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입사 당시 100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현대증권에서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던 펀드매니저의 명성을 뒤로 한 채, 어느 날 갑자기 기업경영에 도전장을 내밀고 뛰어들었고, 제조와 금융을 축으로 13개 계열사를 보유한 KIC그룹을 성공적으로 일궈낸 경이의 사람이다.

"당시 오너로 계시던 분이 가능성을 알아본 거죠. 그때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 투자를 한 상황였는데 그 분 보기에 이상직은 절대 기업간판을 내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오너는 결국 본인이 찾던 적임자로 점찍은 이 동문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치고 경영권을 승계해줬다."그때 제 나이가 서른 아홉였어요."그는 그렇게 40이 채 안 된 젊은 나이에 상장기업의 CEO가 됐고 그것이 오늘의 이스타를 있게 한 전초가 됐다.

3년의 이변, 3관왕!

이스타는 2009년 한국소비자원 발표에서 서비스만족도1위, 탑승률1위, 수송실적1위로 3관왕을 차지하는 이변(?)을 낳았다. 비행기를 띄운 지 3년만의 일이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같은 항공사들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의도 이스타항공 회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공정한 이익 분배로 '상생'… 경제가 민주화돼야

뚝심과 열정으로 전문성 키우고 'Only 1'



▲ 이스타항공은 지난 7월 1일 인천-나리타 운항을 새롭게 시작, 인천-삿포로에 국한되어있던 해외 노선을 2개 노선으로 확장했다. 인천-나리타 취항 기념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이상직 동문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쯤은 자기 비행기에 태우고 싶다라는 소박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싸릿한 가격으로 추억을 파는 국민항공사'란 이스타의 캐치프레이즈 역시 그런 열망을 표현한 것으로 그가 표방하는 경영철학 〈상생〉의 논리를 담고 있다."저는 기본적으로 항공사와 국민들이 이익을 공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가격의 거품을 빼야 합니다."국가든 가족이든 '동반성장'을 해야하며, 나아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나눔의 미학'도 이룰 수 있게 되지 않겠냐는 것. 바로 이런 신념이 신예항공 3년의 이변을 있게 한 비밀병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스타 유니폼은 'MK 동대문표'

그는 자사 직원들의 유니폼에서부터 가격의 거품을 뺐다. 디자인에서부터 전체 공정을 'MK(Made In Korea) 동대문표'로 주문 제작한 것. 결과는 대만족였다. 고객들로부터"유니폼이 참 예쁘다"는 찬사를 들은 것이다. 외국 브랜드를 고집해 다른 나라에 비싼 돈을 지불한다면 그것 역시 거품이며, 그만큼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지론. 이런 확고한 뜻이 이어져 그는 현재 정말 특이하게도 '동대문'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 동대문의 사람들이 모여 만든 MK패션의 고문을 맡아 故 전태일 열사의 유지를 받들어 활동하고 있는 그의 여동생 전순옥 여사와 중소기업을 살리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중소기업을 아끼고 배려하고 있는 데에는 그만의 슬픈 과거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집 뛰쳐나와 짜장면 배달

"나전칠기재료상을 하던 저희 아버지 역시 중소기업인였습니다. 경영을 모르던 형이 가업을 물려받고 80년 무렵 사양산업이 되면서 우리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집을 뛰쳐나왔죠...(웃음) 중국집 짜장면 배달에, 접시 닦기에, 수타면까지 배웠습니다. (웃음)" 전북의 명문 전주고등학교를 나올 만큼 수재였던 그가 가출을 감행했던 진짜 이유는 생존을 위해 야쿠르트 배달까지 해야했던 위의 형과 누나가 참고서를 사주지 않는 것에 좌절을 느껴서라고. 그렇게 호된 가난의 덕(?)에 그는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이웃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 항공 중 유일하게 '중소기업인 전용좌석제'를 운영,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기득권층의 독과점을 개선해 공정한 이익분배가 이뤄져야만 해요." 그것이 곧 경제 민주화임을 강변하는 이상직 동문. "어떤 유명 정치인이 '이상직은 정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정치에 뜻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취재기자의 직설화법에 그의 답도 막힘이 없다."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습니다!"그런데 거기, 단서가 붙는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

"거품 빼고 도전하라"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줄 수 있는 말을 해달라고 했다."저는 중국 오자서에 나오는 인정승천(人定勝天)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면 하늘도 감복해 이룰 수 있다는 말인데, 무엇이든 자기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전문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자신의 거품을 빼고 뚝심과 열정으로 도전하는 것, 그가 평소 신봉하고 실천해온 'Only 1' 정신이라고 한다.

20년 축구狂에 섬세한 남자

이상직. 그는 '키카스'라고 하는 축구동호인팀에서 20년을 뛴 축구狂이며, 통키타와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 지역노래자랑에 나가 인기상을 탄 적도 있는 부드럽고 섬세한 남자다.

인터뷰 마지막으로, 모쪼록 모교가 옛 명성을 되살려 자존심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미력하나마 한 몫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모교 후배들이 이스타에 지원해올 때면 항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게 되더라는 귀띔도 잊지 않았다.

그는 지금 동문들이 이스타를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제1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성황리 마쳐

우승에 경찰행정학과, 준우승은 건축공학과팀 차지
입상팀들 장학기금 화답에 참가자들 뜨거운 박수



▲ 대회에 앞서 클럽하우스 앞에서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했다



▲ 이연택 회장(왼쪽)이 경찰행정학과 팀에게 우승컵을 수여하고 있다

'제1회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지난 9월28일 금강CC에서 열려 우승에 경찰행정학과팀(박재승 문기호 박득곤 홍성권), 준우승은 건축공학과팀(유종칠 김 검 박진영 이정진)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대회는 각 학과 및 친목동문회 대표 12팀과 이연택 회장, 김희옥 모교 총장,김동정 원용선 상임고문, 한우삼 상임부회장, 송석환 수석부회장, 구자선 부회장 등의 초청 2개팀 등 모두 14개팀이 참가한가운데 오후 12시 29분부터 티업, 로컬 룰과 대한골프협회 규칙을 적용해 경기를 가졌었다.

경기 종료후 가진 시상식에서 이연택 본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문간 신뢰와 우의를 쌓기 위해 마련된 오늘 이 대회가 면면히 맥을 잇는 연례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동문사회와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뜻깊은 대회로 정착되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김희옥 모교 총장은 축사에서"총동창회는 모교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감사와 기대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본회 전영화 사무총장의 사회로 우승팀은 이연택 회장이, 준우승팀은 송석환 수석부회장이 각각 트로피와 부상(상품권)을 수여했다.

이날 성적은 팀원 4명중 상위 3명의 스코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우승팀은 229타, 준우승팀은 237타를 기록했다. 또 3위는 동우회(한우삼 정환민 김상일 고용규)로 238타, 4위 체육교육과(이광우 장관용 김주평 성시헌)는 239타를 쳐 2~4위간에 1~2타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다.

정상영 본회 상임고문은 시상식 뒤 가진 만찬자리에서 "모교 발전은 모두의 염원이다. 다함께 동국발전의 축배를 들자"고 건배를 제의하며 동문들의 동국사랑을 일깨웠다. 이어 경영학과 김진억 동문과 여성인 행정대학원 이화진 동문이 건배제의에 나서 축제분위기를 끌어올렸다.



▲ 우승컵(왼쪽) 및 준우승컵

이 날 만찬행사 말미에는 KB국민은행(은행장=민병덕 동문)에서 협찬한 42인치 LED-TV를 놓고 참가자들의 열띤 기대와 관심속에 김동정 고문이 행운권을 추첨, 김덕상(77/81 교육) 동문에게 행운이 돌아갔다.

이날 우승을 차지한 경찰행정학과팀은 3백만원, 준우승한 건축공학과팀은 1백만원을 각각 장학기금을 출연하기로 화답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또 행운상을 받은 김덕상 동문도 장학금 50만원을 협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의 우승 및 준우승 트로피(200만원)는 신성약품 회장 김진문(64/70경영)동문이 제작, 기증해 왔으며 순회배로 차기 대회까지 총동창회에서 보관하게 된다.

김진선 동문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맡아

강원도지사 때부터 유치 실현에 올인



전 강원도지사 김진선(71/74행정)동문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됐다.

김진선 동문은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 모교 행정학과를 졸업하던 1974년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영월군수, 강릉시장, 강원도지사 등 주요공직을 거쳤으며, 강원도 지사를 지내던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올림픽 도전을 처음으로 공식선언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실현을 위해 올인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0년 대회와 2014년 대회 유치위원회에선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2018년 유치활동 때는 특임대사 자격으로 IOC 위원들을 상대로 활발한 스포츠외교 활동을 펼쳤다.

평창올림픽조직위는 오는 10월 19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직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김 동문을 조직위원장으로 정식 선출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집행위원장까지 겸하게 될 김 동문의 임기는 2013년 10월까지 2년간이다.

어청수 동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전 경찰청장 어청수(73/80경행) 동문이 지난 8월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어청수 동문은 경찰청 치안감을 거쳐 경남지방경찰청, 부산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청장을 지냈으며 경찰대학 제30대 학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제14대 경찰청장을 역임했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대사를 맡았으며, 최근까지 모교와 용인대학교 사법대학원 겸임교수를 맡아왔다.

명예경영학박사 수위 축하연



(주)세스코·(주)팜클 회장 전순표(53/57농학) 본회 고문이 지난 8월 31일 저녁 그랜드하얏트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수위 축하연'을 가졌다.

본회 제24대 총동창회장을 지낸 전 고문은 모교 발전과 활발한 기업활동 등으로 지난 8월19일 모교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었다.

진담(珍潭) 이석용 書展



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이석용(54/58정치) 동문이 오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 2층에서 '진담 이석용 서전'을 갖는다. 이날 자서선 '보험은 사람이다'의 출판기념회도 함께 가질 예정이다.

반기문 UN사무총장 축하 조찬회



월간 Diplomacy 회장인 임덕규(56/60법학) 본회 고문이 지난 8월 12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반기문 UN사무총장 재선 축하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하 조찬회에는 우리나라 입법, 사법, 행정 및 재계 인사 3백여명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뤘다

신세대문화예술단 교장 맡아



이인진(57/62법학) 동문이 사단법인 국회의장기 신세대문화예술단 교장에 취임했다. 지난 7월 2일에는 신세대예술단 운영자문 및 공연지원 등에 끼친 공로로 국회 헌정관에서 있었던 헌법 61주년 기념행사장에서 공로패를 받았다.

세계 녹색새마을운동연맹 총재 추대



전 한남대 총장 신윤표(61/65행정) 동문이 지난 8월 18일 대전 평송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있은 '세계녹색새마을운동연맹' 창립기념대회에서 총재로 추대됐다. 이 단체는 대전 녹색경제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 및 정책을 수집, 조사, 분석활동을 하게 된다.

대한민국 헌정회 정책실장 취임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동국대 명예교수 박근호(62/70행정) 동문이 지난 8월 29일 대한민국 헌정회 정책실장에 취임했다.

장애인 협회 상임이사로

이근우(64/68영문)동문이 한국장애인협회 상임이사로 새로 부임했다.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희망걷기' 개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스님(75/승가)은 지난 9월 24일 모교 만해광장에서부터 남산 북측순환로에 이르는 왕복 6Km 길에서 환자들에게 희망을, 시민들에겐 건강한 행복을 선사하기 위한 '제4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희망걷기'를 개최하였다.

종북세력 척결 8.15 국민대회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중앙회장 구재태(63/67경행) 동문이 지난 8월1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광복 66주년·건국 63주년 기념 종북세력 척결/교육 바로세우기 8.15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대회에는 수도권 2천여명 등 전국의 애국단체 회원 1만여명이 참가했다.

한·일 노인복지 국제세미나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대표이사 각현스님(85/87행원) 이 지난 9월 19일 용인시 노인복지관에서 '제2차 한·일 노인복지 국제세미나'를 가졌다.

이천시 문화상 학술부문 수상



최효식(64/71사학, 모교 명예교수)동문이 이천시문화상 학술부문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10월7일 오전 이천시청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있었다.

(주)호텔인터불고 원주 대표이사로

경찰행정학과 산악회 회장 강석천(72/79경행) 동문이 지난 10월 1일(토)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에 소재한 (주)호텔인터불고 원주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한국서민연합회 사무실 이전



한국서민연합회 회장 최윤섭(68/72수학) 동문이 지난 7월 27일 광화문에 소재한 영진빌딩 702호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본회 고문인 이민휘, 류주형, 최규철 동문과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을 비롯하여 정기용 한국서민연합회 전 회장과 김희오 모교 명예교수, 신승길 본회 지도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마라톤코스 완주 100회 도전



이영균(68/72도공,우향기획 대표)동문이 오는 10월23일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2011 조선춘천마라톤에 참가, 생애 100번째 42,195km 마라톤코스 완주기록을 세울 예정이다. 이 동문은 2003년부터 마라톤을 시작, 최근에는 1년에 20~30개 대회에 출전할만큼 왕성한 체력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112ROTC 동문회장을 맡고 있다.

시집 '내년에 사는 法' 출간



홍사성(71/78불교,전 불교방송 방송본부장) 동문이 첫 시집 '내년에 사는 法'을 펴냈다. 이번 시집에는 서시 '목어(木魚)' 외에 '내년에 사는 법' '못난이 화엄세상' '해수관음에게' 등 모두 104편의 주옥같은 시가 실려있다.

세계스포츠법학자대회 부회장 재선임



모교 법과대학 교수 연기영(71/75법학) 동문이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세계 60여개국의 스포츠법학자들이 참여해 개최된 제17회 '세계스포츠법학자대회'에서 임기 3년의 부회장에 재선출되었다.

세무법인 '호람' 공동대표로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박동열(73/78행정) 동문이 지난 8월31일 30여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초2동에 '세무법인 호람' 대표세무사로 취임했다.

서울신문 전무이사로 승진



김은호(75/82경행) 동문이 지난 8월 26일 서울신문 상무이사에서 전무이사로 승진했다.

연극영화학과 후배사랑 멘토... 10년간 총 10억원 약속



모교 연극학부 출신 연예인들이 후배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후배 사랑 멘토 장학기금' 10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5일 모교 본관5층 교무회의실에서 김희옥 총장을 만나 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연극학부 70학번 배우 이덕화 동문과 동문회장 이효정 동문이 주축이 된 이번 장학기금은 강석우, 임예진, 이경표, 홍학표, 최유라, 남성진, 소유진, 김수로 등 연예계 스타 동문 20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1인당 매년 500만원씩 10년간 총 10억원을 모아 형편이 어렵거나 연기 재능이 탁월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줄 계획이다. 장학금은 매학기 연극학부 4학년 학생을 위주로 20명에게 등록금의 절반이 넘는 250만원씩 지급하게 되며, 기부 참여 연예인들이 직접 오디션을 보고 장학금 수혜 학생을 선발한다.

매학기 20명씩 1년에 4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므로 학년 정원이 50명인 연극학부 4학년생 중 40명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입게 된다. 동문 연예인들은 또 장학금을 받는 후배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1대1 만남을 통해 연기 지도와 취업지원도 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현정, 이정재 동문이 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원씩 기부했고, 소유진, 김소연, 류시원, 김상중 동문 등도 CF 출연료 2억5000만원 전액을 전달한 바 있다.

모교 김희옥 총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정을 갖고 꿈을 위해 노력하는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문들의 선행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오뚜기 식품사업부 상무 승진



김인수(76/80농학) 동문이 (주)오뚜기 건강기능 식품사업부 상무이사로 승진했다.

평안북도 중앙도민회 표창장



새마을지도자 평안북도 박천군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이권하(76/83식공) 동문이 지난 7월 29일 평북 중앙청년회 하계수련회에서 평안북도 중앙도민회가 주는 표창장을 받았다.

부산 장안중학교 교장 취임



이학송(78/82불교)동문이 지난 8월26일 부산 장안중학교 교장에 취임했다.

한국 리모델링 건축대전 주거부문 대상



(주)기림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승욱(79/83건공)동문이 지난 9월6일 사단법인 한국 리모델링협회 주최 제1회 한국 리모델링 건축대전 리모델링 준공부문(주거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사재 털어 독도 홍보관 마련



'독도사랑회' 회장 길종성(80/87국사, 전 고양시 의원) 동문이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1동 월드메르디앙 빌딩 2층에 개인 재산 1억여원을 들여 '독도홍보관'을 마련했다.

독도홍보관에는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고지도와 동·식물 사진, 우표 .독도의 사계가 담긴 사진 등 독도 관련 자료 100여점이 전시되어 있다.

열네번째 조각 작품 전시회



가농조형연구소 대표 전종무(81/85미술) 동문이 지난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종로구 관훈동에 있는 갤러리 KOSA space에서 열네번째 개인전을 가졌다.

'행복한 미소' 禪서화 특별기획전



대한불교조계종 망운사 주지 성각스님(97/99문원)이 지난 8월 15일부터 부산시민회관 한슬갤러리에서 8.15광복 66주년을 기념하는 '행복한 미소' 禪서화 특별기획전을 열었다.

민주평화통일 대구 달서구협의회장에



본회 대구지부 회장 손창수(81/87한의, 손한의원 원장) 동문이 지난 7월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시 달서구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다.

손 동문은 현재 대구시 달서구 한의사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우리말 팔만대장경' 봉정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정우식(88/93철학) 동문은 지난 9월 20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편 '우리말 팔만대장경' 봉정식을 가졌다.

대한불교청년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포교원, 조계사가 후원한 이번 봉정식은 대한불교청년회 초대 총재 만해스님의 '불교대전' 편찬 간행의 정신과 최초의 '우리말 팔만대장경' 발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스컨신 밀워키 지리학과 조교수로



윤혜진(92/96지교) 동문이 지난 8월 18일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지리학과 조교수로 임용됐다.

2002년 가을 미국에서 경제지리학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시작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윤 동문은 모교 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한 바 있는 윤종안(55/59경제) 동문의 차녀다.

올해 입법고시 최종합격



최성민(경제학과 08졸업) 동문이 2011년도 제27회 입법고시에서 최종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시험에는 총 5813명이 지원해 35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며 16명이 합격했다.

결 혼

▲황성모(74/78경행, 서울 노원경찰서 서장)=8월 20일 장남 춘구군 결혼
▲양회관(07/07행원)=8월 27일 장남 성일군 결혼
▲홍선기(69/73정외, 통일안보 경기포럼 회장)=9월 3일 아들 진경군 결혼
▲송우근(96/98경원, 푸른샘건설(주) 회장)=9월 3일 장녀 희영양 결혼
▲이창수(78/81건공, 원오원건축사사무소 대표)=9월 17일 장녀 종은양 결혼
▲김택용(00/01사원, 울산동문회 회장)=9월 17일 장녀 예지양 결혼
▲하만장(90/92경원, 연희택시(주) 대표이사)=9월 18일 장남 경호군 결혼
▲최상철(64/71경영, 파인로지스틱(주) 대표이사)=9월23일 장남 승훈군 결혼
▲구태회(87/93행원, 동국한방병원 상임이사)=9월 24일 장녀 경민양 결혼
▲노환영(61/65영문, 서울 마주협회 이사)=10월 15일 장남 학재군 결혼
▲정연수(70/74과교, 말표산업(주) 대표)=10월 21일 차녀 옥주양 결혼
▲문준수(69/74인철, (주)서일멜라민 대표이사)=10월 29일 3녀 성혜양 결혼
▲박청규(73/79경행, 경기 부천오정경찰서 서장)=10월29일 아들 종현군 결혼

부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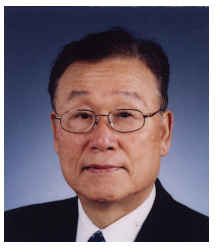
▲양영훈(64/67경영, 본회 이사)=7월 9일 본인 별세
▲장동락(70/77정외, 전 동창회관 건립위 기획모금위원장, 본회 상임이사)=8월 6일 부친상
▲양원식(56/62국문, 前 동국회(부산지부 산학동문회)회장)=8월 23일 숙환으로 부인 별세.
▲이희석(63/66정외, 본회 상임이사)동문=8월 24일 본인 별세
▲박원기(77/81체교, 과천여자고등학교 교장)=8월 28일 모친상
▲임제태(52/56법학, LA 거주)=부인상. 9월 2일 장례식
▲손호태(99/01행원)=9월 9일 빙모상
▲고광윤(61/65농학, 본회 상임이사)=9월 21일 모친상
▲전우석(79/84통계)=본인 별세. 9월 21일 장례식
▲이학태(61/66식공, 식공과총동문회 2대 회장)=9월 22일 본인 별세
▲민병천(56/58일원, 전 모교 총장)=10월 4일 본인 별세

*223호 '동창회비' 김윤목(91/93행원)을 김윤묵으로 바로잡습니다.
*4.19혁명동지회 (회장=윤성열69/63상학)'를 (59/63상학)으로 바로잡습니다.
* '동창회비' 서영준(65/68법학)을 (64/68법학)으로 바로잡습니다.

■ 수원 총동문회

청 · 장년 동문 영입해 수도권 최대 동문회 도약


2대 회장 박지원


3대 회장 홍사일


5~6대 회장 남평우(작고)


8~9대 회장 홍승구


12~17대 現 회장 김용구


총무 황 영

역대 회장단	
1대	조정환
4대	윤대철
7대	유승권
10대	홍성두
11대	김영환

수원총동문회는 지난 1963년 창립해 지역동문회로서는 드물게 50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모교 각 학부를 졸업하고 저마다 색깔이 다르지만 동국을 원천으로 결집한 지역동문들의 총체적 모임으로서 변함없는 우애와 결속을 다지며, 모교와 총동창회 행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수도권도시의 최대동문회로 이름을 빛내고 있는 수원 총동문회를 찾아 오랜 연륜과 함께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면모를 알아봤다.

■뵙게되어 반갑다. 현재 총 회원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현재 수원 출신 모교 동문들의 숫자는 약 1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런데 그 중 연락할 주소와 전화번호가 확실한 상황에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350명 정도다.

■모임은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참여도는 어떠한가?

-우리 수원 총동문회는 2개월에 한 번씩 운영이사회를 열고 있으며, 연 1회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회나 신년회를 큰 규모로 개최하여 모교 총장님이나 사회 저명동문을 초빙해 강연회를 열고 있다. 이때는 거의 모든 회원들이 참여해 활발하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지부에 별도로 교직동문회, 한의사동문회, ROTC동문회가 있으며 고등학교 출신별로 연계해 동문회를 하고 있기도 하다

■50년 연륜을 기록하고 있는 수원 총동문회의 자랑꺼리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

-우리 동문회의 굳건한 결속력은 이곳 수원지역에 널리 알려져있어 타대학 동문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있을 정도다. 모교에 대한 평판도 좋아 유명 정치인을 비롯한 사회 저명인사들이 명예동문을 자청해 오기도 한다. 자화자찬같지만 우리 수원 동문회는 모교나 총동문회에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동문회로 인정을 하고 있어 회원들 모두가 긍지를 갖고 있다.

■회원들의 활약상이 궁금하다. 어느 분야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달라.

-많은 분들이 정치 · 경제 · 종교 · 학계 · 법조계 등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며, 또 성공을 거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수원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한 박지원(56/58경제, 영신학원 재단이사장), 홍사일(57/60영문, 혜인내과 이사장), 홍승구(58/65법학, 동우사 대표) 동문들을 꼽을 수 있겠고, 現 회장을 맡고있는 김용구(70/74 농경, O.S.E (주) 대표이사) 동문 역시 활약이 크다. 또, 김삼철(63/ 67농학, 서보실업(주)대표이사), 이상웅(67/71임학, 향촌조경(주)대표이사), 심상익(69/74건축, 하나건설(주)대표이사), 최성호(81/89법학, 변호사. 모교 교수), 김기일(85/87일원 법학, 변호사), 정관희(68/72통계, 전 경기대학교 대학원장), 조병로(81/91일원 사학, 경기대학교 교수), 손세효(80/88한의, 한중한의원 원장), 이용호(87/93한의, 해동 한의원 원장) 같은 동문들도 자기 전문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동문회의 주 활동이 친목과 화합도모에 있다면, 모교와 동문사회에 이바지하는 데에도 목적과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런 점에 비추어 수원동문회가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 말씀해달라.

-우리는 동국을 모태로 해서 만난 사람들이다. 개교 10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모교는 동문의 위상이 업그레이드되어 '명문동국'의 이름을 떨치던 과거의 영예를 되찾을 수 있길 늘 염원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가 컸던 로스쿨 탈락과 교수 학력위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게된 것은 너무도 큰 충격이었고 안타까웠다. 재단 · 학교 · 총동창회가 3위일체로 제2건학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 힘을 쏟아야할 때다. 모교가 잘 되어야 동문들 역시 용기백배해 애교심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수원 총동문회는 지역동문회로는 처음으로 모교창립 100주년 모금행사때 1억2천만원을 모금해 기탁한 바 있다. 당시 동문들이 자발적 ·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지금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다. 모교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한결같은 충정에서이다.

■정말 마음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다. 그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면 이 기회에 공개 바란다.

-언제나 가슴 설레고 행복한 일은 후배들과의 만남인 듯 하다. 2년 전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대학축구연맹전을 했는데, 모교 축구부 출신으로 전국 고등학교와 대학 축구부에서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는 후배들이 대거 찾아와 경기를 치렀다. 소식을 들은 우리 동문회가 그들을 반갑게 맞아줬고 선 · 후배가 함께 하는 대화합의 장이 됐다. 젊은 후배들이 선배를 들어올려 무등을 태워줬고, 모두 목청껏 교가를 부르고 서로를 얼싸안으며 정말 보람차고 감격적인 만남이었다. 안타깝게도 모교가 결승전에서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웃음)

■ 수원 동문회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동문들에게 좋은 말씀 부탁한다.

수원 총동문회는 학교를 사랑하고, 동창회 모임을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동문들이 모인 곳이다. 동문회는 '봉사와 희생'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동문간에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고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애와 애교심이 싹트고, 모교를 걱정하고 후배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듣고 싶다.

-회원들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동문회가 되려고 한다. 앞으로 청 · 장년층 동문들을 적극 영입해 젊은 피를 수혈하고 동문회 발전의 기틀로 삼을 것이다. 그것이 또한, 모교와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

■오늘 말씀 감사하다. 총동창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모교 대학원에 다니는 우리 수원의 후배 김태원 동문이 지난 9월 7일 총동창회에서 주는 2학기 동국장학회 장학금을 받았다.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 총동창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여 모교발전에 기여하는 수도권 최대동문회의 면모를 다져나가겠다.

우리 수원 총동문회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

모교 총장 · 저명 동문 초빙해 우애와 결집 기회로
동국창립 100주년때 1억2천만원 기탁
강한 결속력 … 외부 인사도 명예동문 자청


▲ 수원 총동문회 김용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지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남산코끼리들 추억의 학창길 누비다

동국가족 남산걷기 대회 3백여명 참가

제1회 동국가족 남산 걷기대회가 지난 10월8일 오후 4시30분 모교 중앙잔디밭 불상 앞에 집결해 발대식을 가진 뒤, 남산 순환도로 일대에서 열렸다.

모교와 총동창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본회 이연택회장과 모교 김희옥 총장을 비롯 동문과 동문가족, 교직원, 재학생 등 3백여명이 참가, 단풍이 갓 물들기 시작한 가을 남산길을 오르며 동국가족의 대단합과 우애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남산 팔각정에서 상임부회장 법타스님(모교 정각원장) 선창으로 동국발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연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은 모교와 동창회가 함께 추억의 남산길을 걸으며 서로 소통하고 애교심을 확인하는 날"이라면서 "모쪼록 이 행사가 '모교 방문의 날'로 정착되어 동국발전의 새로운 지렛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희옥 총장은 이에 화답하는 축사를 통해"우리 동국의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남산을 걸으며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한 동문 및 가족, 교직원, 재학생 모두가 아름답고 풍요로운 남산의 정기를 받아 모교와 동문사랑을 확인하는 뜻깊은 하루가 되길 빌며, 오늘 이 교정에서 또한 홈커밍 행사를 치르고 있는 81학번 동문들과 ROTC 112학군단과 더불어 동국 대화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출발에 앞서 참가자들은 김주환 모교 지리학과 명예교수로부터 남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생태계 및 지질학적 특성 등의 해설을 들으며 남산에 대한 견문을 넓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명진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삼삼오오 교정을 출발해 남산 둘레길을 오르며 시원하게 펼쳐진 주변 경관을 만끽했다.

즐거운 담소를 나누며 남산 팔각정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법타스님이 선창한 구호"세계의 중심 동국! 한국의 중심 동국! MY PRIDE 동국!"을 다함께 외치고 기념촬영을 마쳤다.

저녁 6시 30분부터 참가자들은 모교 상록원에 마련된 만찬장에서 모교가 마련한 푸짐한 잔치국수와 수육 외에 음료와 다과를 들며 본회 원용선 고문의 축배 제의로 모두 함께 모교와 동문발전을 염원하는 건배잔을 들며 정겹고 뜻깊은 축제의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동국가족 남산걷기대회'의 개인별 참가비로 받은 수익금 300만원은 모교 장학금으로 전달되었으며, 식품공학과 동문들이 음료수와 간식을 지원했다.

△박근영(73/78식공, (주)한국 네슬레 상무이사)- 캔커피 3박스

△이상윤(80/84식공, (주)풀무원 홀딩스 상무)- 샘물 10박스

△유동렬(82/86식공, 해태연구소 냉동개발팀장- 스낵, 과자 7박스

△김보경(84/91식공, 서울우유 양주공장 생산1팀장)- 팩 우유, 두유 등 5박스

△윤형일(85/92식공, (주)농심 스낵개발팀장 차장- 스낵 2박스

△강태규(00/07식공, (주)농심 스프개발팀)- 웰치 3박스

ROTC 한마음 한마당 제전

선후배간 끈끈한 우애 과시



동국대 112ROTC 총동문회(회장=이영균, 68/72도시공학)의 제3회 한마음한마당 제전이 지난 10월8일 오전11시 모교 체육관 등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3기 양수성(61/65 경영,(주)프라임스텝스 고문), 8기 이용채(66/70식공, 제원인터내셔날 대표이사), 9기 성영석(67/71경영, 한국 포리머 회장)등 3기부터 51기 까지의 동문 및 가족들과 후보생 260여명이 참가, 112학군단의 단결력을 과시하고 모교발전을 염원했다.

이날 모교 체육관에서 열린 행사는 홀수와 짝수 기수로 나누어 배구, 족구, 탁구, 단체 줄넘기와 줄다리기, 행운권 추첨 등을 가졌으며, 홀수기수가 승리했다.

한편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이어서 모교와 총동창회가 주관한 '남산길 걷기대회'에 동참하는 등 바쁜 일과를 보내며 ROTC동문의 대화합을 다졌다.

81학번 입학 30주년 행사

후배들에게 장학금 전달해



금년으로 입학 30주년을 맞은 '81학번 홈커밍데이' 행사가 지난 10월8일 오후 4시부터 모교 중강당을 비롯한 캠퍼스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모두 43개 학과 졸업동문 1백여명이 참가하여 시종 흥겹고 감격에 찬 분위기 속에 '추억의 영상' 감상, 당일 81학번 동문들이 모금한 기금을 11학번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 모교 소개 영상 및 환영공연, 모교방문 깃발 이양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연택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모교와 함께 공부하며 고락을 함께 했던 동문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 영원히 함께 가야할 보물과도 같은 존재"라고 격려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특히 80년대 관련 동영상을 보며 학창시절의 추억과 낭만, 암울했던 시대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가자들이 다함께 변화한 교정을 둘러보며 모교의 발전상을 확인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14위

3계단 상승 … 국제화 · 교수연구부문 향상

중앙일보가 지난 9월26일 발표한 '2011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이 종합 14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7위보다 3계단 상승(上昇)한 결과다. 우리대학은 총 350점 만점에 196점으로 서울시립대와 공동 14위에 올랐다.이번 대학평가에서 우리대학은 전체 분야에서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도 강세를 보였던 국제화 부문의 추가적인 점수 상승과, 고질적인 점수 하락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교수연구부문 점수가 일부 개선돼 전체 순위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수연구부문은 지난해 34위에서 25위로 아홉 계단 상승했다.

부분별 세부결과를 지난해와 비교해 살펴보면 △교육여건 및 재정(115점)=34위→22위(68.51점) △교수연구(115점)=34위→25위(51.87점) △국제화(60점)=5위(전년동위, 39.57점) △평판·사회진출(70점)=22위→23위(36.6점) 등이다.

국제화 지수는 해외파견 교환학생이 크게 늘어나고 외국인 교수비율이 높아진 것, 그리고 영어강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연구 부문의 경우 논문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크게 좋아졌으나, SCI 논문 수나 피인용지수 등은 아직도 개선해야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영문학과 최상위 그룹 부상

한편 지난 8일과 9일에 거쳐 발표된 중앙일보 대학평가 1단계 17개 학과평가에서 우리대학 평가 대상 학과는 대부분 중상위권에 올랐다.

인문사회계열 9개 학과 평가에서는 영어영문학과가 최상위 학과로, 철학과가 상위학과에 올랐다.

이밖에 경제, 사학, 사회복지(경주), 일어일문, 사회학과가 모두 중상위학과에 올랐다. 2011 중앙일보 대학평가는 전국 1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됐다.

단계별 내용은 △1단계=전국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9개, 이공계열 8개 학과 평가 △2단계=전국 4년제 100개 대학 종합평가결과 △3단계=영국 더타임스 세계 대학평가 결과 등이다.

경주캠퍼스 취업률 상승

경주캠퍼스가 201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결과, 국제화부문 전국 13위와 취업률 전국 16위를 차지했다.

종합순위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100개 대학중 49위를 차지했다.

이번 국제화부문은 지난 해 전국 15위 보다 2계단 상승한 결과로, 경주캠퍼스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선도대학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국제화를 추진한 결과가 주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취업률은 지난 해보다 19계단 상승해서 전국 16위, 영남권 4년제 27개 대학 중 3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교육시스템의 선진화와 교육프로그램 혁신, 학생경력개발 강화 등의 전략을 충실히 실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인문한국(HK) 연구기관 선정

불교문화연구원 10년간 50억원 지원

모교가 2011년도 인문한국(HK) 지원사업에서 연구기관으로 단독 선정되어 매년 약 5억원씩 향후 10년간 50억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문한국(HK)은 한국연구재단이 국제적 학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교우위에 있는 연구소를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교는 올해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14개 대학과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교 불교문화연구원이 이번에 신청한 과제는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 담론'으로, 향후 10년간 지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에 대한 단계별 연구를 통해 불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국형 문명 패러다임을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4층 규모 주차장 준공

혜화관과 동국관 사이 지하

모교 혜화관과 동국관 사이 지하에 건설된 지하주차장이 지난 9월5일 준공되었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약 2년3개월간 공사가 진행된 지하주차장은 연면적 15,328㎡에 지하 4층, 지하1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총 44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이번 완공으로 모교는 차량 통행으로 인한 혼잡을 상당부분 해소시킬 수 있게 됐으며 면학분위기 조성 및 친환경 캠퍼스로 거듭나게 됐다.

추계 대학축구 2연패

결승전서 연세대에 1:0 승리

모교 축구부(감독=김종필)가 지난 7월 12일 태백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제42회 전국추계대학축구연맹전 결승전에서 연세대를 꺾고 우승, 사상 최초 전국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최우수선수상(MVP) = 추평강(체육교육 3) △득점왕 = 추평강, 이영덕(3골·체육교육 3) △GK상 = 갈지웅(체육교육1) △최우수 지도자상 = 김종필 감독

CPA 26명 최종 합격

전국 대학 중 10위 차지

지난 9월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46회 공인회계사시험(CPA)에서 모교는 26명의 최종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대학 중 10위 규모로, 역대 최대 합격자를 배출한 지난 해(2010년)에 비해 10명 낮아진 수치이다.

여학생 ROTC 5명 합격

전체 지원대학 중 가장 많아

지난 8월25일 발표된 대한민국 ROTC 52기에 모교에서 9명의 여학생이 지원해 이중 5명이 최종합격하는 영광을 안았다.

서울지역 20개 대학에서 여학생 165명이 응시해 5대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우수인재 35명을 최종 선발한 이번 대한민국 ROTC 52기에서 모교는 전체 지원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대한민국ROTC 52기 최종 합격자
△김세나(경찰행정 2)
△박주현(경찰행정 2)
△고아라(사학 2)
△남도휘(영어통번역 2)
△박모연(법학 2)

5개 해외대학과 교류 협정

양적 확대보다 질적 교류에 비중

모교가 지난 9월 프랑스 University Paris Diderot · 파리7대학,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등 5개 해외 유수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이번에 새롭게 협정을 맺은 대학은 △프랑스=University Paris Diderot △영국=University of Southampton △스페인=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 · 바르셀로나자치대학 △핀란드=Laurea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중국=Hong Kong Institute of Education · 홍콩교육대이다.

프랑스 University Paris Diderot는 파리 소재 대학 중 유일하게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으로 불교연구에도 관심이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또 교류협정을 맺은 스페인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와 우리대학은 오는 11월 공동으로 오르텔리우스 프로젝트(Ortelius Project)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가 한 · 중 · 일, 남미지역 43개 대학 간 학생교류확대 및 복수학위 수여 등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스페인 최대은행인 상텐데르은행(Santender Bank)이 교환학생의 학업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달 13일부터 10일간 해당 대학들과의 교류협정 체결 실무를 담당한 국제교류팀 김상유 과장은 "그동안 국제교류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체결은 질적인 면에서 많이 향상되었다"며 "앞으로도 교류대학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대와 복수학위제

경주캠퍼스 2년+세크라멘토 2년

경주캠퍼스는 지난 8월 8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새크라멘토(총장=알랙산더 곤잘레스)와 '2+2 복수학위제'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교는 '2+2 복수학위제'를 통한 학생교류 및 학술교류를 추진하며 인문대, 과학기술대, 불교문화대 등 9개 단과대학의 산하 35개 학과가 이에 해당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입학 후 2년은 경주캠퍼스에서, 나머지 2년은 새크라멘토에서 전공수업을 받게 되며, 졸업 후에는 양교 모두에서 학위가 주어진다.

학생들은 물론 경주캠퍼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2+2 복수학위제'는 내년부터 시행되게 되며 ▲4학기 본교에서 이수 ▲평점평균 3.0 이상 ▲토플(TOEFL) 550점 이상, IBT 60~65점 이상 ▲기초전공 9학점 이수 ▲교양교과목 42학점 이수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새크라멘토는 캘리포니아 주내에 소재한 대학으로 캘리포니아주립대 23개 캠퍼스 중 일곱 번째로 규모가 큰 곳으로 총 8개의 단과대학이 있으며 1,200여명의 교수진과 29,000여명의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소통경영 최고위과정 개설

언론정보대학원, 2학기부터

언론정보대학원(원장 김무곤)은 이번 9월학기부터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전문과정인 '소통경영 최고위과정('Leader As Communicator')을 개설했다.

LAC과정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한국의 기업 · 조직의 리더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특별한 가치와 경험, 리더들의 역할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는 특별과정이다.

'저탄소 그린캠퍼스' 선정

녹색교육 인프라 조성 수행

경주캠퍼스 생태교육원(원장=이정일 · 바이오학부)은 지난 9월 1일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그린캠퍼스 사업은 대학 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 전략 수립지원 지원과 그린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으로 경주캠퍼스는 이번 사업에 '4대 녹색 부분 및 15대 중점과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탄소량 배출을 전년도 대비 매년 7퍼센트 이상 감축시키는 것을 세부목표 사항으로 설정했다.

4대 녹색부분은 녹색경영 조성, 탄소제로 녹색교정 만들기, 녹색생활 실천으로 구성돼 있으며, 15대 중점과제로는 녹색 인프라 조성 및 그린 리더 쉽, 에너지 절약형 녹색캠퍼스 운영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교사(校史)자료 수집 안내

한 장의 사진! 한 점의 유인물! 동국의 역사를 살립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106년 동국의 역사를 되살릴 교사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동국대학교 관련 사진 한 장, 유인물 한 점, 물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동국의 역사를 살리고, 동국의 자긍심을 살리고, 동국의 미래를 살릴 것입니다.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 연 락 처 : 학술정보관리팀
☎ 02-2260-3450(이광휘 과장)
E-mail : otan49@dongguk.edu
■ 수집기간 : 상시(제한없음)

중앙도서관장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금액 · 성명 가나다순.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졸업년도 · 학과를 필히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각종회비 납부안내
- 외환은행 150-22-01536-0
- 국민은행 006001-04-237869
- 예 금 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2011년 6월 27일 ~ 2011년 10월 10일 접수분〉

부회장 회비


월탄스님(64/68불교) 부회장 100만원


김기중 (59/63상학) 부회장 100만원


김배근 (58/63경제) 부회장 100만원


김성재 (58/63정치) 부회장 100만원


김성호 (91/93불원) 부회장 100만원


김월환 (54/58법학) 부회장 100만원


김진선 (71/74행정) 부회장 100만원


김충석 (61/63상학) 부회장 100만원


민병덕 (74/81경영) 부회장 100만원


박경옥 (68/72정외) 부회장 100만원


박재호 (83/87연영) 부회장 100만원


손인환 (81/91미술) 부회장 100만원


신경림 (54/65영문) 부회장 100만원


안민동 (81/83행원) 부회장 100만원


안채란 (48/54국문) 부회장 100만원


연기영 (71/75법학) 부회장 100만원


고용규 (70/74정외) 부회장 100만원


유호식 (74/78식공) 부회장 100만원


육기동 (61/65식공) 부회장 100만원


윤대표 (72/76경행) 부회장 100만원


윤영창 (63/67국문) 부회장 100만원


이두철 (89/91사원) 부회장 100만원

이상원 (77/81경행) 부회장 100만원


이상윤 (93/98일원) 부회장 100만원


이은갑 (62/74경영) 부회장 100만원


일면스님 (75/ 승가) 부회장 100만원


정병조 (67/71인철) 부회장 100만원


정연수 (70/74과교) 부회장 100만원


정환민 (65/69농학) 부회장 100만원


차문희(72/79정외) 부회장 100만원


차준은 (64/68경영) 부회장 100만원

지도위원 회비

▲김남수(57/61법학) 30
▲김종규(58/64경제) 30
▲김한주(67/77일원) 30
▲노환영(61/65영문) 30
▲박태권(71/75정외) 30
▲윤천영(59/66농학) 30
▲윤홍섭(65/72상학) 30
▲이두세(57/63정치) 30
▲인중식(53/57경제) 30

부회장 회비

▲송영인(63/67통계) 30
▲이호열(52/56영문) 30

상임이사 회비

▲강경순(92/93경원) 20
▲강선구(81/85사회) 20
▲강종영(60/65행정) 20
▲권수구(75/82국문) 20
▲김광철(76/83경행) 20
▲김낙돌(64/71경제) 20
▲김남선(67/71통계) 20
▲김덕현(71/75농학) 20
▲김만진(90/92경원) 20
▲김상운(78/85경행) 20
▲김선정(72/76행정) 20
▲김성식(60/64농경) 10
▲김승기(69/73경영) 20
▲김용정(56/59철학) 20
▲김용진(69/73경행) 20
▲김원상(67/71연료) 20
▲김창환(65/67경영) 20
▲김철규(84/86경원) 20
▲김철훈(61/65사학) 20
▲김학진(66/70농경) 20
▲김해근(60/64임학) 20
▲김현삼(81/85영문) 20
▲남궁소창(64/70법학) 20
▲남만우(01/02사원) 20
▲노진명(73/80토목) 20
▲류승희(65/72경영) 20
▲민백기(60/64상학) 20
▲박복식(57/60법학) 20
▲박부엽(59/63상학) 20
▲박장규(56/61법학) 20
▲법현스님(80/84승가) 20
▲선일스님(73/77인철) 20
▲성낙흔(82/83행원) 20
▲손일환(93/94사원) 20
▲송영근(84/88영문) 20
▲송우근(96/98경원) 20
▲신관호(69/73경제) 20
▲신준선(71/72행원) 20
▲안규호(97/98사원) 20
▲안명근(65/69농학) 20
▲양규철(64/68농학) 20
▲양정회(92/93사원) 20
▲오성환(74/81경행) 20
▲원행스님(00/02불원) 20
▲윤여달(64/68법학) 20
▲윤용건(77/84회계) 20
▲이계영(73/80전자) 20
▲이범규(66/73농학) 20
▲이상민(68/69행원) 20
▲이성한(75/79경행) 20
▲이용훈(72/77농생) 20
▲이창수(80/88회계) 20
▲전만식(82/89사회) 20
▲정범스님(88/92경행) 20
▲정용길(63/67행정) 20
▲정중호(73/77무역) 20
▲주선응(59/63불교) 20
▲최락상(71/75전기) 20
▲최종수(08/ 사원) 22
▲하만장(90/92경원) 20
▲허봉주(87/89경원) 20
▲허정식(62/66경영) 20
▲황규훈(66/73경행) 20
▲황성모(74/78경행) 20

이사 회비

▲강진수(81/89법학) 10
▲고기복(93/98법학) 10
▲권홍표(74/80식공) 12
▲김광호(80/88회계) 10
▲김규태(48/52영문) 10
▲김기석(65/69상학) 10
▲김기황(68/72위생공학) 10
▲김덕상(77/81교육) 10
▲김두식(93/00선학) 10
▲김병우(65/69응생) 10
▲김수창(65/69불교) 10
▲김숙희(67/71물리) 10
▲김연수(76/83식공) 10
▲김영운(71/78경영) 10
▲김영윤(76/83정외) 10
▲김옥경(64/68응생) 10
▲김용선(73/77사교) 10
▲김종형(81/88경영) 10
▲김종호(64/70임학) 10
▲김택용(00/01사원) 10
▲김현권(64/71경제) 10
▲김화실(74/78수학) 10
▲김환기(84/91일문) 10
▲김희태(73/77사학) 10
▲나유인(77/81경행) 10
▲류제복(74/78통계) 10
▲민병휘(63/67상학) 10
▲박삼랑(67/69상학) 10
▲박상귀(07/ 사원) 12
▲박재구(76/83식공) 10
▲박천운(67/73경행) 10
▲박필영(03/05불원) 10
▲박학수(64/68경영) 10
▲박형봉(70/77전자) 10
▲박화영(72/76경행) 2
▲배상덕(82/89경제) 10
▲백용운(86/90수교) 10
▲사기순(84/88국문) 10
▲손근익(77/84건축) 10
▲손낙훈(65/69국문) 10
▲손양호(70/74불교) 10
▲송재천(62/66정외) 10
▲신수길(63/67경제) 10
▲신현태(54/57경제) 10
▲안병국(71/75건축) 10
▲안병민(69/72도공) 10
▲안수일(80/87미술) 10
▲오원배(72/79미술) 10
▲오필성(76/83농경) 10
▲윤종원(81/87한의) 10
▲윤주호(99/00사원) 12
▲이경구(58/65법학) 10
▲이남진(49/52영문) 10
▲이병노(86/91경행) 12
▲이상재(76/80국사) 10
▲이상태(08/ 사원) 10
▲이상호(89/94산공) 10
▲이성재(76/83정외) 10
▲이영옥(84/90무역) 10
▲이윤영(71/78토목) 10
▲이천기(64/68농경) 10
▲이춘자(95/97경원) 10
▲이학균(77/81사교) 10
▲이한우(81/83교원) 10
▲임대근(84/88국사) 10
▲임수근(66/70경행) 10
▲임 식(73/77체교) 10
▲임 준(81/85체교) 10
▲장대종(68/72경행) 10
▲장대진(89/95정외) 10
▲전병용(77/84경행) 10
▲전신섭(89/91경원) 10
▲전종무(81/85미술) 10
▲정동석(81/85체교) 10
▲정민용(47/49전문부) 10
▲정해종(05/07경영) 10
▲조내근(06/ 사원) 10
▲조수길(87/91법학) 12
▲조승철(53/57농학) 10
▲조태호(59/63경영) 10
▲조현석(89/95한의) 10
▲지재성(60/67정치) 10
▲최순희(76/81수교) 10
▲최용춘(73/78법학) 10
▲최지섭(69/76경제) 10
▲최해수(05/06사원) 10
▲하진수(61/65정치) 10
▲한만선(70/74경행) 10
▲한법균(79/82행정) 10
▲한은정(94/99국민윤리) 2
▲함혜현(93/97경행) 10
▲홍인표(61/65임학) 10
▲홍창화(78/82정외) 10

일반 회비

▲강덕천(76/83화공) 2
▲강서일(73/77영문) 2
▲강승문(79/82건축) 2
▲강용산(01/05경영) 2
▲강종욱(78/82회계) 2
▲강준현(83/87회계) 2
▲강창호(76/82전자) 2
▲강충호(92/99컴공) 2
▲강태원(69/73물리) 2
▲고광일(86/93국사) 2
▲고성훈(79/84사학) 2
▲고승경(69/74도공) 2
▲고창환(64/68경영) 2
▲곽동호(85/93전자) 2
▲곽문수(84/91사회) 2
▲구덕회(57/61법학) 2
▲구병문(67/70상학) 2
▲구본호(79/86건축) 2
▲구상회(71/75전자) 2
▲구 훈(74/81토목) 2
▲권병학(77/84물리) 2
▲권순일(62/67국문) 2
▲권영택(08/ 사원) 2
▲권오진(81/88회계) 2
▲권주혁(85/93경행) 2
▲권택돈(83/87회계) 2
▲김경옥(80/84물리) 2
▲김교남(61/65불교) 2
▲김기주(79/86국문) 2
▲김기현(79/84국사) 2
▲김난주(06/08사원) 2
▲김내환(77/85회계) 2
▲김덕진(90/94불교) 2
▲김동기(75/82국문) 2
▲김동명(89/93경제) 2
▲김동주(65/72상학) 2
▲김동찬(78/82식공) 2
▲김만연(55/62정치) 2
▲김명원(86/93정보관리) 2
▲김명하(67/74정외) 2
▲김무권(73/76화공) 2
▲김문광(85/92회계) 2
▲김문재(84/89국문) 2
▲김문환(63/71응생) 2
▲김부항(95/98정보관리) 2
▲김상동(76/80화공) 2
▲김상문(81/85법학) 2
▲김상민(92/99응생) 2
▲김성철(88/93전자) 2
▲김세만(82/83경원) 2
▲김세영(54/58법학) 2
▲김순기(57/63법학) 2
▲김승걸(52/58사학) 2
▲김양배(60/64경제) 2
▲김양부(88/95경영) 2
▲김영화(63/67경행) 2
▲김옥경(84/89국교) 2
▲김용석(82/86경제) 2
▲김용순(58/64임학) 2
▲김용태(85/92일문) 2
▲김용흥(64/75경행) 2
▲김원주(71/74토목) 2
▲김유련(71/77경영) 2
▲김윤기(64/71임학) 2
▲김은재(78/82식공) 2
▲김은주(02/03사원) 2
▲김의권(82/89전기) 2
▲김의중(52/56정치) 2
▲김익환(63/65영문) 2
▲김재문(60/62법학) 2
▲김재호(08/ 사원) 2
▲김재희(75/79화학) 2
▲김정남(72/79행정) 2
▲김정배(86/93농생) 2
▲김정석(84/88무역) 2
▲김정엽(81/85화학) 2
▲김정운(71/75국문) 2
▲김종곤(70/75건축) 2
▲김종택(86/95일원) 2
▲김종한(00/02교원) 2
▲김주철(80/84행정) 2
▲김중오(79/86행정) 2
▲김직렬(09/ 사원) 2
▲김진태(71/78무역) 2
▲김천수(52/57경제) 2
▲김철완(88/96법학) 2
▲김태범(84/88무역) 2
▲김태석(08/ 사원) 2
▲김태영(86/92의학) 2
▲김태욱(78/83국교) 2
▲김형민(70/75경행) 2
▲김홍보(68/76식공) 2
▲김홍서(71/75영문) 2
▲김홍업(84/89경영) 2
▲김화섭(54/68법학) 2
▲김흥식(75/80국문) 2
▲남평우(78/84농생) 2
▲노성규(05/ 사원) 2
▲동명희(83/87농생) 2
▲류관주(78/81농학) 2
▲류병태(78/82체교) 2
▲맹주욱(83/90행정) 2
▲문대전(67/74식공) 2
▲문명은(82/86국교) 2
▲문수만(08/ 사원) 2
▲문정희(66/70국문) 2
▲문종성(74/82법학) 2
▲민덕기(66/70상학) 2
▲박광휘(64/68농학) 2
▲박덕성(66/73식공) 2
▲박명양(53/57경제) 2
▲박봉곤(78/85정외) 2
▲박인수(98/04수교) 2
▲박장서(57/59사학) 2
▲박종구(78/80조경) 2
▲박진옥(83/87물리) 2
▲박철화(78/85농학) 2
▲박충서(76/83화공) 2
▲박형섭(58/60영문) 2
▲박호현(74/81사학) 2
▲방민규(88/95사학) 2
▲배장식(78/82전자) 2
▲배조웅(59/63불교) 2
▲백기완(64/68정외) 2
▲백석기(62/63경제) 2
▲백용운(90/95건축) 2
▲백종만(57/61경제) 2
▲변봉현(67/71자동제어) 2
▲변성춘(89/95화학) 2
▲서거원(60/64경제) 2
▲서동호(60/66법학) 2
▲서석일(00/01사원) 2
▲서재하(61/65국문) 2
▲서정록(68/72수학) 2
▲서태석(84/88농경) 2
▲서행원(78/83국사) 2
▲선은호(96/03화학) 2
▲성연석(67/75통계) 2
▲손경중(77/79토목) 2
▲손락상(84/88행정) 2
▲손유동(75/79행정) 2
▲손종석(93/97화공) 2
▲송귀현(72/79연영) 2
▲송규평(61/65농학) 2
▲송기용(61/65영문) 2
▲송기태(/) 2
▲송부자(61/65사학) 2
▲신동백(76/83상공) 2
▲신동헌(64/70경영) 2
▲신부영(67/71경제) 2
▲신용준(60/64국문) 2
▲신원식(78/84경제) 2
▲신재현(58/61영문) 2
▲신정란(04/06사원) 2
▲신종국(63/67식공) 2
▲신진우(83/90경제) 2
▲신태환(63/67법학) 2
▲신현달(80/87무역) 2
▲신호중(76/83통계) 2
▲심상익(69/74구축공학) 2
▲심재호(83/87법학) 2
▲심지연(94/98미술) 2
▲안병수(58/62경제) 2
▲안 완(71/78경제) 2
▲안재열(64/72상학) 2
▲안주희(81/85불교) 2
▲안중철(71/75불교) 2
▲안치웅(81/88사교) 2
▲안태호(85/92교육) 2
▲양동기(84/88회계) 2
▲양원모(05/08사원) 2
▲양희철(73/77경영) 2
▲엄기갑(87/94농학) 2
▲여환준(67/71법학) 2
▲염동훈(58/64법학) 2
▲오근옥(72/82회계) 2
▲오성운(83/88정외) 2
▲오양균(81/88법학) 2
▲오윤록(85/92행정) 2
▲오정균(73/77승가) 2
▲오정애(91/95경영) 2
▲오희영(75/80조경) 2
▲옥건호(67/74식공) 2
▲우근식(98/01경원) 2
▲우종환(84/88회계) 2
▲유성모(85/91전자) 2
▲유주순(83/90회계) 2
▲유환식(54/57경제) 2
▲유희수(69/76구축공학) 2
▲윤상열(70/74토목) 2
▲윤승식(90/92일원) 2
▲윤애영(92/96회계) 2
▲윤일현(84/88경영) 2
▲윤주천(75/79전기) 2
▲윤찬희(78/85화공) 2
▲윤혜영(73/77국교) 2
▲은세곤(57/61사학) 2
▲이계중(70/77입학) 2
▲이규형(/) 2
▲이기정(63/70식공) 2
▲이남희(86/90영문) 2
▲이면규(81/88무역) 2
▲이명오(87/94전기) 2
▲이문수(61/65사학) 2
▲이문현(67/74경영) 2
▲이병길(67/71화학) 2
▲이병직(71/75통계) 2
▲이상용(75/81건축) 2
▲이상훈(05/08교원) 2
▲이선인(71/76농학) 2
▲이수남(62/69경제) 2
▲이연석(66/74경행) 2
▲이영두(76/80경행) 2
▲이영륜(74/81법학) 2
▲이영성(92/96경영) 2
▲이영준(55/59법학) 2
▲이옥동(82/84영문) 10
▲이용운(80/87행정) 2
▲이원상(87/91정보관리) 2
▲이윤철(88/95경영) 2
▲이인영(82/87국문) 2
▲이정권(75/82전기) 2
▲이정모(61/65정치) 2
▲이정묵(86/90무역) 2
▲이종복(55/59불교) 2
▲이종희(84/86경원) 2
▲이진욱(93/98법학) 2
▲이철희(79/83전기) 2
▲이태영(93/95불원) 2
▲이택우(83/89식공) 2
▲이풍규(59/64법학) 2
▲이해도(61/65국문) 2
▲이해인(58/63경제) 2
▲이향수(83/87회계) 2
▲이현준(00/07전기) 2
▲이호형(05/ 사원) 2
▲이황흠(08/ 사원) 2
▲이훈상(88/92법학) 2
▲이희윤(62/66경영) 2
▲인성찬(85/92체교) 2
▲임경섭(57/61사학) 2
▲임석빈(57/61경제) 2
▲임양섭(/) 2
▲임용범(69/73전자) 2
▲임우택(82/89경영) 2
▲장광수(80/84경영) 2
▲장민석(84/89경영) 2
▲장선춘(64/66식공) 2
▲장성관(54/57국문) 2

와병 중 애틋한 솔선수범



4.19혁명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김남수(57/61법학)동문이 병마와 싸우는 어려운 상황 중에도 지난 8월 4일 본회 지도위원 회비 30만원을 보내왔다.

김 동문은 지난 2009년 예기치 않던 대장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올 1월 재수술을 받고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동문은 지난 해 4.19혁명 50주년 기념식에서 4.19유공 건국포장을 받았다.

미주 동문회 DB구축협의

정창근(73/77무역) 모교 대외협력본부장이 7월12일부터 24일까지 전 미주 동문모임 활성화 및 모교 발전 홍보차 미국출장을 다녀왔다.

정 본부장은 현지에서 LA, 시카고, 뉴욕, 휴스턴, 워싱턴DC 등에 있는 동문들을 접촉하고 학교홍보 동영상을 통해 모교소식과 발전상을 전했다. 또 중앙/한국일보 및 미주 대표 언론매체의 포커스 케이를 통해 모교 프로그램에 관한 소식을 보도하고, 제2건학운동 및 건학기금 조성과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모교발전을 위한 미주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였다.

사범대학 부중 동문 16명

본회에 일괄 회비 보내와

동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 동문 16명이 지난 8월 22일 본회에 개인 연회비 2만원씩, 모두 32만원을 단체로 보내왔다.

직장 단위 소속 동문들이 이처럼 본회에 회비를 일괄해 보내온 것은 근래 보기드문 일이다.

■회비 납부자 명단

△고문(교장) 이상재(76/80국사교육, 본회 이사. 개인납부)

△고문(교감) 김화실(74/78수학, 본회 이사. 개인납부)

△윤혜영(73/77국교) △서행원(78/83국사교육) △김기현(79/84국사교육) △안주희(81/85불교) △한형숙(81/85영문) △안치웅(81/88사교) △문명은(82/86국교) △동명희(83/87농생) △김덕진(90/94불교) △김상민(92/99응용생물) △한은정(94/99국민윤리) △선은호(96/03화학) △박인수(98/04수교) △김종한(00/02교원) △장영호(99/03불교) △이상훈(05/08교원)

▲장성도(03/04사원) 2
▲장영상(66/73식공) 2
▲장영호(99/03불교) 2
▲장원동(93/94사원) 2
▲장익선(71/78물리) 2
▲장재완(82/89화공) 2
▲장한기(53/55국문) 2
▲전덕희(79/83체교) 2
▲전승민(88/96통계) 2
▲전영찬(70/77영문) 2
▲전하철(70/74농경) 2
▲정대진(79/83회계) 2
▲정만모(77/81토목) 2
▲정병렬(84/88법학) 2
▲정석숭(59/63상학) 2
▲정순구(70/77공업경영) 2
▲정순봉(53/59법학) 2
▲정순옥(09/ 사원) 2
▲정연승(75/82토목) 2
▲정영석(88/95회계) 2
▲정영자(03/06사원) 2
▲정운영(81/88전자) 2
▲정윤무(56/58일원) 2
▲정태욱(72/74토목) 2
▲정해윤(77/81무역) 2
▲정해춘(62/67국문) 2
▲정 현(91/97화학) 2
▲정후영(99/01불원) 2
▲조병구(67/74식공) 2
▲조복례(08/ 사원) 2
▲조성대(75/79수교) 2
▲조성천(58/64국문) 2
▲조성현(84/91사회) 2
▲조승우(90/94회계) 2
▲조승희(63/67경영) 2
▲조양기(74/81건축) 2
▲조용복(56/58경제) 2
▲조용완(83/87화학) 2
▲주리원(83/87화학) 2
▲지만희(64/71임학) 2
▲진각스님(남진선)(88/91동국로얄) 2
▲진경철(68/72법학) 2
▲차준환(70/74전자) 2
▲채병섭(76/81사학) 2
▲채연수(73/77경영) 2
▲천형식(90/97산공) 2
▲최경수(92/97회계) 2
▲최경윤(02/05사원) 2
▲최규진(88/94영문) 2
▲최동욱(76/80화공) 2
▲최동지(75/82토목) 2
▲최미옥(/) 2
▲최봉석(92/99정외) 2
▲최선우(69/73경행) 2
▲최수경(/99동국로얄) 2
▲최순임(81/83회계) 2
▲최용석(96/98기계) 2
▲최정규(98/01사원) 2
▲최철영(64/68행정) 2
▲최해용(61/63법학) 2
▲최화자(72/76승가) 2
▲최흥길(58/62경제) 2
▲최흥식(75/81통계) 2
▲추교춘(02/03사원) 2
▲추연구(64/67행정) 2
▲하상호(58/62임학) 2
▲한권규(82/86건축) 2
▲한상용(65/72법학) 2
▲한성일(94/98법학) 2
▲한요진(56/61사학) 2
▲한진희(78/83무역) 2
▲한형숙(81/85영문) 2
▲함태근(61/65연극) 2
▲허동수(74/81행정) 2
▲허 복(74/78승가) 2
▲현영대(81/88건축) 2
▲혜용스님(/) 2
▲홍권표(74/78농경) 2
▲홍남기(87/94농학) 2
▲홍장식(64/71농경) 2
▲홍 정(01/09행정) 2
▲황삼규(66/73행정) 2
▲황선웅(64/68농경) 2
▲황성식(91/96법학) 2
▲황용인(85/92교육) 2
▲황태준(74/78건축) 2

총동창회 장학기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십시오

■ 계좌번호: 국민은행 501601-01-141914 예금주:(재)동국장학회

■ 문 의 처 : 총동창회 사무처 (☎ 02-733-3991, 02-736-4988)

* 장학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CMS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씩 기부하셔도 됩니다.